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한국에서 18년을 살았고, 대만에서 30년을 살았다. 경험해본 바 한국과 대만은 서로 간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 한국 주재국가 참가는 그것을 해소하는

작은 시작' 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 ● 하오밍이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조직위원장 인터뷰

하오밍이(49)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조직위원장은 한국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한국 화교인 하오밍이 조직위원장은 부산에서 출생, 18년을 한국에서 살다 대만으로 건너갔다. 소아마비를 앓아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대만 출판계의 실력자로 인정받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하오밍이 조직위원장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준비에 바쁠 것임에도 한국이 주재국가로 참석해 줘서 고맙다”며 국내 관계자들을 반겼다.

### > 한국을 타이베이국제도서전 주재국가로 초청한 이유는?

현재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대만은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한류열풍을 보자면 사실 대중문화의 한 축인 드라마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나는 한국에서 18년을 살았고, 대만에서 30년을 살았다. 경험해 본 바 한국과 대만은 서로 간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 한국 주재국가 참가는 그것을 해소하는 ‘작은 시작’ 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 출판계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출판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것도 인상적이었다.

### > 대만에서는 한국의 출판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출판물은 아시아권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출판물의 중국시장 성공은 우리에게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작년과 금년에는 한국의 어린이책이 대만에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대만에서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책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각색한 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수한 문학 작품도 많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만의 많은 출판사가 한국의 다양하고도 우수한 출판물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 > 타이베이국제도서전은 중국시장 진출을 통한 테스트마켓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대만은 중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창이다.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기는 하나 베일에 싸여 있어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중국시장에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를 대만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이다’ 하는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좋은 지침은 제시할 수 있다. 해외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한 경우는 10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대만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성공한 경우는 50퍼센트가 넘는다. 대만을 잘 살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대만에서 시장성이 확인된 도서들은 중국에서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향이 있다.

### > 한국과 대만의 출판교류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번역문제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많지만,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 이번 타이베이도서전에서 한-중 번역세미나를 준비한 것도 그런 이유다. 번역인재 양성과 교류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번역문제가 빨리 해결돼 더 많은 출판교류가 이어졌으면 한다. **한·중**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